

## 읍의 집

-성서의 읍기와 바빌로니아 읍(Ludlul bēl nēmeqi, “내가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에 나타난 고난과 축복의 장소로서의 집에  
대한 비교 연구-

정영아\*

### 1. 들어가는 말

‘고난과 축복의 장소로서의 집’이라는 주제는 성서의 읍기에서 프롤로그와 본문, 에필로그에 나타난다. 이 주제는 하나의 통일성 있는 문학 작품인 읍기에서 전체 구조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에필로그에서 읍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탄식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읍의 얼굴을 드시고”<sup>1)</sup> 그의 운명을 돌이키시어 읍에게 처음 복보다 더한 복을 주신다. 이때 읍의 집은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과 복 주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구체적인 탄식 극복의 장소, 하나님의 행사가 증언되는 장소, 공개적인 위로의 장소로 나타난다. 읍기에 나타나는 이 주제가 소위 바빌로니아 읍이라고 불리는 고대 근동의 ‘루들룰 벨 네메기’(Ludlul bēl nēmeqi, “내가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 이하 Ludlul로 표기)의 클라이막스에도 나타나므로, 우리는 두 문헌을 비교하며, 성서 읍기의 더 넓은 문화적 배경을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박사, 구약학

1) 참고로 읍기 42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부분의 번역과 본문 비평은 본 소논문의 ‘2.4. 에필로그에 나타난 읍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 2. 옹의 집

### 2.1. 집의 의미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집 개념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능적으로 한 건물,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집은 그 기초가 보통 돌로 이루어졌고 담은 주로 흙벽돌이나 돌로 쌓았다.<sup>2)</sup> 또한 집은 부동의 삶의 장소로 가족과 다른 사회적 그룹들이 서로 가까이 함께 모여 살며 건축학적으로는 다양한 모양으로 지어질 수 있다. 종교학적인 관점에서는 집을 지을 때 신께 이 집을 바치거나 신의 특별한 보호를 기원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sup>3)</sup>

고대 셈족어 bait-은 전 셈족언어들에 보편적으로 널리 퍼진 단어이다. 우리는 이 단어를 아카드어 bītu(앗수르어, bētu), 우가리트어 bt, 아람어 ܒܝܬ 에티오피아어 bēt, 아랍어 bait, 페니키아어 bt, 히브리어 בית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sup>4)</sup>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초기의 기록들 가운데 ‘집(Haus)’ 혹은 ‘사는 곳(Wohnung)’은 수메르어로 é, gá, 그리고 èš 등으로 표현되었다. 결국 이러한 개념들의 단어 그룹들은 아카드어 bītu로 쓰여지고 있다.<sup>5)</sup>

---

2) U. Hübner, “Art. Haus, (I. Archaeologisch),” RGG<sup>4</sup> 3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2000), 1495b 참조.

3) K. Hoheisel, “Art. Haus, (II. Religionswissenschaftlich),” RGG<sup>4</sup> 3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2000), 1478a 참조.

4) G. Johannes Botterweck, ed., ThWAT 1 (Stuttgart; Berlin; Köln: Verlag W. Kohlhammer, 1973), 630 참조. 종종 בית은 고향, 사는 곳이나 가정으로 번역된다.

5) G. Johannes Botterweck, ed., “akk. bītu: ‘Haus, Wohnung, Tempel, Heiligtum, Palast (meist jedoch é-gal), Gut, Lager, Zimmer, Gefäß, Ort, Gegend, Haushalt, Familie, Eigentum,’” ThWAT 1, 631 참조.

아카드어 ‘비투’[bitu(m)]는 수메르어 ‘에’(É)와 같은 췌기문자 로고그램(Logogram)을 쓰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6)</sup>

1. 집, 거하는 장소, (짐승의) 주거지, 성전, 왕궁, 2. (영주의) 영지, 소유지(사유지, 부동산), (유목민의) 야영지, 3. (집, 궁전 또는 성전의) 방, (배의) 선실, 무덤(묘실), 4. (화물 수송의) 컨테이너, 저장소, 주택, 5. 장소, 작은 구획의 땅, 영역, 지역, 6. 세대, 가족, 왕실, 7. (일정 규격의) 단지, 온갖 종류 소유의 집합체 등.

히브리어의 בית 역시 아카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기본 개념 외에 파생되는 여러 의미들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욕기에 나오는 집은 단순히 건물과 관련된 의미 이상의 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집에 대한 당시 사회적, 종교적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다.

בית ‘가족’은 부계 가족(pater familias, אב)과 연관되며, 그의 부인, 그에게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들, 그에게 의존하는 친족들, 그를 의지하고 있는 외국인들(גֵּרִים)과 그의 남종과 여종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단일체(Gesellschaftseinheit, 즉 가계, 세대)로서의 בית은 법적이고 제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 안식법규에서는 모든 집(בית), 그의 아들과 딸들, 남종과 여종들, 짐승과 외국인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출 20:10). 오래전,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그의 집과 특별한 일치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사람이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그 집에 임하였다(수 7:1-15).<sup>7)</sup>

---

6) Martha T. Roth, ed., “bītu,”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2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 of Chicago, 1965), 282 참조.

7) G. Johannes Botterweck, ed., “Art. בית,” *ThWAT* 1, 636.

## 2.2. 프롤로그에 나타난 축복과 고난의 장소인 집

집은 인간의 일생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탄생의 장소이며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자녀들을 낳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sup>8)</sup>

욥기에 나오는 집에 관한 가장 첫 번째 언급은 욥기 1장 4절에 나오고 있다. 욥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 때마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누이들도 초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בית איש יומיו)에서 잔치를 베풀고(ועשו משתה)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לשאול ולשתות עמהם), LXX ἐσθίειν καὶ πίνειν μετ’ αὐτῶν)”(욥 1:4).

LXX 욥기 42장 11절에서 “그들이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φαγόντες ὁὐ καὶ πίνοντες παρ’ αὐτῶ)”라고 번역하고 있다.

한편 히브리어 성경(BHS)에서는 “그들이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떡을 먹었고(ויאכלו עמו לחם בביתו)”라고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집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늘의 모임이 소집된 장면에서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유의하여 보았는지 질문하고 계신다. 이때 욥은 “나의 종 욥”이라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또한 여호와와 입에서 직접 불리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욥은 여호와께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세상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 어찌하여 일개 한 사람이 여호와께 이와 같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천상 회의에서 그의 의로움이 주제가 되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일까? 사단은 욥이

---

8) Schwertner, Siegfried,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14 (New York: W. de Gruyter, 1976), 475 참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항소한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 (הבית)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욥 1:9-10)

여기서 욥은 사단의 참소 때문에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무고하게 시험을 당하고 있다. 고대 근동에서도 우르 제3왕조 시대 이후로 문학작품들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문제가 주제가 되었다.<sup>9)</sup> 이 우르 제3왕조 시대에 “‘미나-아르니’(Mina-arni), 나의 죄가 무엇인가 (What-is-my-guilt)?”라는 아카드어 이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sup>10)</sup>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작품들 중에는 구약의 욥기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진 텍스트들이 발견되었다.<sup>11)</sup> 대표적으로 소위 “수메리아 욥(Sumerischer

---

9) E. Chiera, *Selected Temple Accounts from Telloh, Yokha and Drehe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21), 29 참고. 한 수메르어 욥 텍스트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S. N. Kramer, “ein Mann und sein Gott,” *Supplementsto VT* 3 (1960), 170-182 참고; 한 바빌로니아 왕조 시대의 대화 “한 남자와 그의 신(ein Mann und sein Gott)”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The crime which I did I know not),” *RB* 59 (1952), 239-250 참고. J. Nougayrol가 이 텍스트를 “Une Version ancienne du ‘Juste Souffrant’라고 일컫기 시작하였다. J. J. A. van Dijk, *La Sagesse Suméro-Accadienne* (Leiden: Brill, 1953), 120-121. 의인의 고난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Tun-Ergehen Zusammenhang)”의 논리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0) W.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Oxford: Clarendon, 1960), 10.

11) C. Kuhl, “Neuere Literarkritik des Buches Hiob,” R. Bultmann und E. Dinkler, Hg., *THEOLOGISCHE Rundschau Neue Folge* (Tübingen: J. C. B. Mohr/Paul Siebeck, 1954), 299 참조. 구약 성경의 욥기를 우가릿 텍스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유사한 시들과 비교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우가릿 텍스트 R, 25. 460를 그레이(Gray)는 시편과 비교한다. J. Gray, “The Book of Job in the Context of Near Eastern Literature,” *ZAW* 82 (1970), 251-269 참고.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에 관련된 문구 비교는 마이어(Mayer)를 참조하시오. W. Mayer,

Hiob)”)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와 그의 신(Ein Mann und sein Gott)”과 “바빌로니아 테오디체(Babylonische Theodizee)”, “바빌로니아 읍”)이라고 불리는 “ludlul bēl nēmeqi”가 있다. 이외에도 쉘렌베르크(A. Schellenberg)는 고대 근동에서와 같은 정도의 높은 유사성을 보이진 않으나, 이집트 문학 작품 가운데도 읍기와 비교할 만한 소위 “이프웨르의 권고(Mahnworte des Ipuwer)”라고 불리는 텍스트가 있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프웨르(Ipuwer)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전능한 주(Allherr)에게 탄원하며, 또한 전능한 주(Allherr)의 대답 장면에서는 읍기 38장 이하 구절에 나오는 장면과 비견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 읍기 31장의 “성결 서약(Reinigungseid)”은 이집트 “사자의 서(Totenbuch)” 125장에 나오는 성결 서약과 비견할 만하며, 읍기 40장 이하 구절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부분은 이집트 문학의 하마와 악어에 대적하여 싸우는 신들의 전투 장면과 흡사하다. 또한 내용 중에 신들의 모임(Götterversammlung) 장면을 예상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간다.<sup>12)</sup>

---

“Untersuchung zur Formsprache der babylonischen ‘Gebetsbeschwörungen’,” *Studia Pohl (StP)*, Series Maior 5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6). 지금까지의 읍기와 관련된 고대 근동 문학작품들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조망은 뮐러(Müller)를 참조하시오. H.-P. Müller, *Hiobproblem, Seine Stellung und Etnstebung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sup>3</sup>; org. ed. 1978). 특히 49, 180ff. 문학 구조와 관련된 비교 연구는 H.-P. Müller, “Die Hiobrahmenerzählung und ihre altorientalischen Parallelen als Paradigmen einer weisheitlichen Wirklichkeitswahrnehmung,” H.-P. Müller, M. Welker, and E. Zenger, [Hg.], *Alttestamentliche Botschaften in den Auseinandersetzungen unserer Zeit, Altes Testament und Moderne 1* (1998), 103-121; org. ed., W. A. M. Beuken, Hg., *The Book of Job*, BEThL 11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21-39 참조.

- 12) 이 이집트 작품의 생성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19, 20 왕조나 11, 12 왕조 때로 보기도 한다. 쉘렌베르크는 약 기원전 1500년경으로 작품 생성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 A. Schellenberg, *Hiob und Ipuwer, Zum Vergleich des alttestamentlichen Hiobbuchs mit ägyptischen Texten im Allgemeinen und den Admonitions im Besonderen*,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ed. (Zürich:

세 번째로 나오는 집에 대한 언급은 13절, 고난이 시작되는 장면에서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후, 욥이 받는 고난이 시작되는 첫 장면에서 집은 욥의 자녀들이 만형의 집에 모여 먹고 마시는 즐거운 장소였다.

“하루는(וַיְהִי) 욥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בבית אחיהם הבכור)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וַיִּשְׂתִּימוּ וַיִּשְׂתִּימוּ) (욥 1:13)” 재난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때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날, 형제자매가 만형의 집에 모여 둘러앉아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던, 바로 욥이 복의 정점을 누리는 때였다. 급기야 이 즐거운 잔칫집이 거친 들에서 불어온 대풍에 네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욥의 자녀들이 파묻혀 죽게 되는 무덤이 되고 만다(18절).

프롤로그에 나오는 집은 욥이 자녀와 물질의 축복을 받아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로 묘사되며 이러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한 결과라는 것을 사단의 진술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이 나타나는 장소와 시간이 욥의 자녀들이 만형의 집에 모여 축제를 벌이는 바로 그 행복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 집이 무너져 집은 결국 욥이 재물을 비롯하여 그 자신의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네 번째 마지막 재난의 발생지로 나타난다.

### 2.3. 본문에 나타난 욥의 탄식과 그의 집

첫 번째 시험에 대해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

려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와 이름의 찬송하고 있다(욥 1:19-21)<sup>13)</sup>. 사단의 두 번째 참소를 받아 욥은 자신의 온 몸에 악창이 나는 고난을 당하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욥 2:10)<sup>14)</sup>.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 욥과 변론하나 욥은 결국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울부짖는다. 욥의 고난 앞에서의 고백은 자신의 지난 삶의 내용과 미래의 마지막이 여호와와 손에 놓여 있으며, 오직 주만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시 취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재앙을 보내시기도 하신다고 고백한다. 이후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식하기 시작한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고난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하나님께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욥기 본문에 나타나는,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언급된 집에 관한 욥의 진술들은 공통적으로 탄식(Klage)의 양상을 띤다.<sup>15)</sup>

첫째, 욥기 7장 10에서는 욥이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곧 사라질 것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과 죽음 이후의 삶의 세계에서 단절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의 집(ביתו)”<sup>16)</sup>(3인칭)을 통해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לא-ישוב עוד לביתו ולא-יכירנו עוד מקמו:

“그는 결코 다시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자기 처소도 결코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13) “내가 모테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

14)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 하겠느뇨...”(욥 2:10).

15) 욥기에 나오는 집에 관한 구절은 다음 글을 참조하라. Even-Shoshan, ed., *A New Concordance, Treasaurus of the Language of the Bible Hebrew and Aramaic Roots, Words, Proper Names Phrases and Synonyms* (Jerusalem: Kiryat Sepher, 1997).

둘째, 욥이 자신을 변호하며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17장 13절에서 는 무덤과 집이 연관되어 탄식 가운데 표현되고 있다. 참고로 고대 문명에서 죽은 자가 바로 그의 살던 집에 묻히거나 가까운 곳에 안치되는 경우도 있었다.<sup>16)</sup>

13 אִם-אֶקוּה שְׂאוּל בֵּיתִי בַחֲשֶׁךְ רִפְדֹתִי יִצְוֵנִי:  
14 לִשְׁחַת קְרָאתִי אָבִי אַתָּה אִמִּי וְאַחֲתִי לְרֵמָה:  
15 וְאִיָּה אֲפֹ תִקּוּתִי וְתִקּוּתִי מִי יִשׁוּרְנָה:  
16 בְּדִי שָׂאֵל תִּרְדּוּנָה אִם-יִיחַד עַל-עֵפֶר נַחַת:

- 13 만일 내가 스올(שְׂאוּל)이 내 집(בֵּיתִי)이길 바란다면, 흑암 중에 내 침상을 꿇으리라.
- 14 무덤(שְׁחַת) 더러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일컫었을쥬데,
- 15 대체 어디에 내 소망이 있으며, 내 소망을 누가 바라보겠느냐(שׂוּרָה, 생각이나 하겠느냐)?
- 16 스올의 권세(손들, 영역) 안으로 그들이 내려가려니와 매한가지로 우리가 먼지(עֵפֶר) 위에 쉬리라.

13절의 אִם은 뒤따라 나오는 미완료 시제(Impf. אֶקוּה,<sup>17)</sup> Pi. 단수 1인칭)과 함께 자신의 변론의 귀결로 ‘스올이 내 집이기를 소망했더라면...’이라는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가정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14절에서 욥은 이미 죽은 자가 들어가 머무는 무덤(שְׁחַת)<sup>18)</sup>을 자신의

16) Siegfried Schwertner, ed.,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14, 475; “그 집이 나의 감옥이 되었으며...”[ana kisukkija itūra bi-i(var.-e)-tu, the house has become my prison];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44:96 (Ludlul II) 참조.

17) קוּה pi. “(간절히) 기다리다,” L. Koehler and W. Baumgartner, eds.,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315 참조.

아버라, 썩은 시체에서 발생하는 구더기를 어미와 자매라는 표현으로 이미 삶의 영역에서 한참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구덩이, 웅덩이(Grube, Zisterne)”라는 의미를 가진 “šwḫ” 어근은 셈족어 가운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9)</sup>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 문헌들에서는 웅덩이에 빠진 상태는 대표적인 재앙의 표시(Unheilsvorstellung)로 상징되고 있다.

15절에서는 죽음의 한가운데 이미 속한 것 같은 욱의 절절한 탄식이 표현된다. 죽음으로 모든 기대가 끝을 본다는 사실과 미래에 대한 기다림은 결국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구약의 근본 사상에 속한다. 15절에 나오듯이 희망은 스올(שׁוֹל)<sup>20)</sup>로 함께 가지 않는다.

팔(Vall)은 욱기 17장 14절과 1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먼저 15a를 14절에 연결하여 “구덩이(קוּמָה)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라, 구더기들을 내 어미와 자매라 하는데 대체 나의 소망(מִצְפָּה, my hope)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한 다음 15b는 “그리고 나의 밧줄(מִצְפָּה, my rope)-누가 그것을 보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다.<sup>21)</sup> 팔은 만일 MT가 정확하다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מִצְפָּה는 분명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18) šḫt라는 표현은 뚜렷하게 구덩이(šwḫ)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Othmar Keel,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Timothy J. Hallett, tran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1997), 66 참조.

19) arab, “šāḥā’ ‘tief einsinken’; mhebr. šāḥ, jüd. -aram. šajhāh, ugar. šḫ,” Die keilalphabetische Texte aus Ugarit (KTU) 1.82, AOAT 24 (Münster: Neukirchen-Vluyn, 1976), 11; “šḫt, UT Nr.,” 2400 und akk. šuttatu[m], šuttu II, Held, “Pits and Pitfalls in Akkadian and Biblical Hebrew,” *JANES* 5 (1973), 175, n 18, šūḥā. “(Fall-)Grube,” Wolfram von Soden, ed.,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I (Wiesbaden: Harrasswitz Verlag, 1981), 1292; L. Wächter, “Art. קוּמָה,” ThWAT 7 (Stuttgart; Berlin; Köln: Verlag W. Kohlhammer, 1993), 1245.

20) Wächter, L., “Art. שׁוֹל š’ōl,” Heinz-Josef Fabry and Helmer Ringgren, Hg., ThWAT 7, 901-910 참조.

21) G. R. Vall, “From Womb to Tomb: Poetic Imagery and the Book of Job,” Ph. 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93), 176 참조.



“tiqwāh”는 동사 “qwh(קַח)”에서 온 “taqṭal/tiqṭal”형 명사이다.<sup>24)</sup> 아직까지 동사 “qwh”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며 두 가지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동사 “qaw(קָו)”<sup>25)</sup>에서 파생된 명사로 “끈”이라는 의미와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 동사 “qāwāh”<sup>26)</sup>로 “바라다, 기다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tiqwāh”의 상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동사 ‘abad(“멸망하다”)로 표현되고 있다.<sup>27)</sup> קַח는 시편의 기도문들보다 주로 지혜 문학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사람 편에서 스스로 얻어질 수 있는 자신의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sup>28)</sup>

16절의 첫 단어인 קַח는 일부 학자들이 LXX의 “μὲτ’ ἐμοῦ”를 염두에 두고 “בָּרִי”[(스울의) 빛장들”, bars (of Sheol)]를 הַבְּרִי(“나와 함께”)로 교정하여 번역을 시도하기도 했다.<sup>29)</sup> 또는 בָּרִי가 בְּרִי(“~의 손에, ~의 세력

24) R. Meyer, *Hebräische Grammatik II*<sup>3</sup> § 40,7.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2), 참조. 짐머리(Zimmerli)는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구약에서 “소망하다(Hoffen)”와 “희망(Hoffnung)”에 대한 어떤 정해진 분명한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W. Zimmerli, *Der Mensch und seine Hoffnung i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참조.

25) 아카드어 *qu(m)*(“삼파, 실, 줄”)는 수메르어에서 차용된 단어로 히브리어, 아람어(jaram)에서는 *qaw(wā)*로 역시 “줄(Schnur)”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Wolfram von Soden, ed.,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 (Wiesbaden: Harrasswitz Verlag, 1972), 925 참조.

26) 아카드어 *qu’i(m)*(또는 *quwwū/qubbū*)은 “(목적격과 함께) 기대하다, (전치사 *ana*+여격(與格)와 함께) 기다리다”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는 *qūwā*, 시리아어에서는 *qawī*로 나타난다. Wolfram von Soden, ed.,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 931 참조.

27) 예를 들어 에스겔 19:5; 37:11; 잠언 10:28; 11:7, 23 [LXX]; 욥기 8:13; 14:19. E.-J. Waschke, “Art. קַח *tiqwāb*,” ThWAT 8 (Stuttgart; Berlin; Köln: Verlag W. Kohlhammer, 1995), 749 참조.

28) E.-J. Waschke, “Art. קַח *tiqwāb*,” ThWAT 8, 749 참조.

29) Clines,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Dallas: Word, 1989), 369, 375; Driver and Gra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Together with a New Translation*, 2,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14 (Edinburgh: t. & t. Clark, 1921), 156; Fohrer, *Das Buch Hiob*,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16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 Mohn, 1963), 279, 282;

안으로”, into the hands of)의 축약형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sup>30)</sup> 16절에서 동사 תרדמה의 주어는 무엇인가? תרדמה의 미완료 3인칭 여성 복수형으로 주어는 14절에 나온 아버지로 불린 “구덩이/무덤(קבר)”이 단수 여성이며, 어머니와 자매로 불린 “구더기(קמח)”도 단수 여성이라는 것을 볼 때 의인화된 이들, 곧 “무덤과 구덩이”(아버지, 어머니와 자매)가 תרדמה의 주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셈족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동사인 *jd/wrd*(תרד)는 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서의 방향 이동을 나타낸다. 구약에서 이 내려감의 목적지는 죽음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sup>31)</sup> 또한 탄식사에서 먼지(עפר)는 종종 죽음이나 이전에 누렸던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위치를 잃어버리고 비천한 상황에 처한 것을 상징한다.<sup>32)</sup>

셋째, 욱기 19장 15절에 자신이 받는 고난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내 집(בית)”에서 나의 영향 아래 머물며 나에게 의지해 살던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한 자들에게 조차도 소외당하는 처절한 상황이 묘사된다.

---

D. Mathewson, *Death and Survival in the Book of Job, Desymbolization and Traumatic Experience*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06), 104, 각주 69 참고.

- 30) Mitchell Dahood, “Northwest Semitic Philology and Job,” John. L. McKenzie. Saint Mary’s Theology Studies 1, ed., *The Bible in Current Catholic Thought* (New York: Herder & Herder, 1962), 55-74; Pope, *Job*, Anchor Bible 15, 3rd ed. (Garden City, N. Y.: Doubleday, 1973), 122 참조; D. Mathewson, *Death and Survival in the Book of Job*, 104 각주 69를 보시오.
- 31) 예를 들어 내려가는 목적지가 스올(שׁוֹל)인 경우는 창세기 37:35, 민수기 16:30, 33, 욱기 7:9; 17:16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웅덩이(*bôr* “pitfall, cistern, grave, prison”)인 경우는 이사야 38:18, 에스겔 31:14, 16; 32:18; 시편 28:1 등이 있으며, 구덩이나 무덤(*šāḥat*, “pit, grave”)인 경우는 에스겔 28:8, 시편 30:10, 욱기 33:24, 먼지(*‘ăpār*, “dust”)는 시편 22:30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G. Mayer, “תרד יָרַד,” ThWAT 3 (Stuttgart; Berlin; Köln: Verlag W. Kohlhammer, 1982), 898 참조.
- 32) W.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5 (1986), 217 참조. 바벨론과 이스라엘, 우가릿 문화권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상징적 언어 표현들은 Wächter, L., “Unterweltsvorstellungen und Unterweltstnamen in Babylonien, Israel und Ugarit,” *Mitteilungen des Institute für Orientforschung* 15 (1969), 327-336 참조.

15 גרי ביתי ואמהתי לֹדַר תַּחֲשַׁבְנִי נִכְרֵי הַיִּיְתִי בְעִינֵיהֶם:

내 집(ביתי)에 유하는 자들(גרי)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낫선 자로 취급하니(נחשבו, 여기며), 내가 그들 눈에 타국인이 되었구나.

고난 받는 의인이 자신의 집에서도 유리된 자로 격리와 박탈감을 표현한 것은 비단 욥기 19장 15절 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안 욥에서도 전형적인 탄식의 나열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

*uštēši <ina> É-ia kamâti arpuđ*

내가 나의 집(É-ia)으로부터 옮기어져, 성읍 밖에서 유리하였도다.

[I was removed from my house, I wandered around outside (the city)

Lambert BWL 32:50(Ludlul I)].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구절은 욥기 19장에서 욥이 여러 가지 말로 자신을 꾸짖고 확대하는 친구들에게 이 모든 재앙과 환난의 배경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항변하는 부분이다.

21 חַנְנִי חַנְנִי אַחַם רַעִי כִּי יַד־אֱלֹהִים נִנְעָה בִּי:

나를 불쌍히 여기라(חנני)<sup>33)</sup>,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 나의 친구들이여!

(이는) **하나님의 손**(יד-אלהים)이 나를 치셨음이다.

이와 연관되어 한글 성경에서는 욥기 23장 2절 b는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고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BHS)을 따르면 “그의 손이 내 탄식 위에 무거우니<sup>34)</sup>, יָדִי כְבֵדָה עַל־אֲנָחִי”라고

33) “인자하게 대하다.”(חנן)

34) 1993년 엘버펠더(Elberfelder) 독일어 성경 판에서는 이 부분을 “그의 손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고대 근동의 Ludlul에 나오는 표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읍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로니아 읍이라고도 불리는 Ludlul에서의 주인공은 마르둑 신이 고난의 직접적인 동인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람베르트(W. Lambert)에 따르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는 바로 이 부분이 탄식자의 탄원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kab-ta-at qāt-su ul a-li-‘I na-šá-šá*

“His hand was heavy upon me, I could not bear it”

(*ludlul bēl nēmeqi* Tablet III Zeile 1).

“내가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ludlul bēl nēmeqi*, ‘I will praise the lord of wisdom’)”의 총 4개의 토판(총 400-500줄)으로 이루어진 이 특이한 문학작품은 첫 번째 토판 첫줄에서 하나의 긴 독백이 시작된다. 한때 고귀한 지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온갖 재난을 겪게 되었는지 그의 탄식 가운데 묘사되었고, 결국 그의 신 마르둑 때문에 다시 건강과 부요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전한다.<sup>35)</sup>

세 번째 토판에서 우리는 Ludlul의 핵심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 구절이 바로 위에 언급한 ‘그의 손이 내 위에 무거우니...’라고 시작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바로 탄식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전체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그의 손(his hand)’은 도대체 누구의 손을 의

---

나의 신을 위로 무겁게 지워졌다, ‘Seine Hand lastet schwer auf meinem Seufzen’”라고 번역하고 있다. 엘리마스에게 대답하여 두 번째 연설을 할 때 읍은 고난을 주는 여호와의 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Und wollte Gott mich doch zermalmern, seine Hand erheben, um mich abzuschneiden’”(읍 6:9).

35) W.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21 참조.

미하는 것일까? 다음에 곧 이어 나오는 구절에서는 역시 “그의”라는 소유격이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화자는 다만 어두운 힌트를 던져주고 있을 뿐, 그는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마르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마르독, 그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에서 그의 이름은 약 200절에 달하는 고통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sup>36)</sup>

구약에서는 한편으로는 생명과 번영과 복 받음이 함께 한 그룹을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과 쇠퇴와 불행의 재앙이 한데 모여 반대의 축을 이루고 있다. 욥은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과 자신에게 닥친 재앙과 병을 뛰어 넘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죽음으로 치닫는 원인,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 그분 때문에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죽음의 장소, 스올(*שׁוֹל*)과 같이 된 집을 언급한다.

#### 2.4. 에필로그에 나타난 욥의 집

에필로그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Theophanic)이 이루어진 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회복들이 일정한 순서대로 전개된다.

- 1)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종교적 회복) → “**하나님께서 욥의 얼굴을 드시고(욕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의 운명을 돌이키심
- 2) 그전 소유의 갑절을 주시며(경제적 회복), 3) 모든 형제, 자매와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욥의 “(그의) 집(*בְּיַד*)”에서 그와 함께 먹고 위로를 한다(사회적 회복).<sup>37)</sup> 4)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심 → 양 일만 사천, 악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 암나귀 일천을

36) W.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23.

37) 욥기 42장 7-11절, 12절에서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욥기 첫 장의 복을 받은 욥을 묘사하는 부분과 비교(욥 1:2-3).

두고(육축이 풍부),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자손의 축복)…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장수의 복).

이때 읍의 집은 하나님께서 읍의 지금까지 당한 고난에서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집에서 음식  
을 즐기고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읍의 에펠로그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즉,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고 마심’의 의미와 가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읍기에서 1) “**하나님께서 읍의 얼굴을 들다**.”라는 회복의 과정이  
고난을 당한 장소에서 2) “**잔칫집**”으로 변한 읍의 집의 앞에 위치하는  
구조는 고대 근동의 문학작품들 가운데 탄식이 끝나고 신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에서 다시 한 번 발견할 수 있다.

Ludlul의 마지막 부분에 화자는 찬양시적 언어로 신 마르дук(Marduk)  
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르дук의 행사, 즉 ‘마르дук이 그를  
구덩이(웅덩이, akk. *ḫaštu*; he. *šaḥar*)<sup>39)</sup>에서 구했다[*ekēmu(m)*]<sup>40)</sup>’는 사실

38) 성스러운 식사와 일반 세속적인 축제의 향응의 식사를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  
를 짓기는 어렵다. 위에서 나타나는 식사의 장면이 세속적인 성격의 것인지,  
종교적인(das kultische Mahl)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F. Noetscher, *Sakrale  
Mahlzeiten*, unpublished, 146. 성스러운 식사(das heilige Mahl)에 대한 종교 현상  
학적인 연구는 F. Bammel, *Das beilige Mahl im Glauben und Völker: Eine  
religionsphänomenologische Untersuchung* (Gütersloh: Bertelsmann, 1950), 11ff 참조하  
라.

39) Wolfram von Soden, ed., “akk. *ḫaštu*, *ḫaltu* ‘Loch, Grube,’”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 (Wiesbaden: Harrasswitz Verlag, 1965), 334; *ina  
ḫa-aš(var.:-aš)-ti šūlu* “to bring up from the pit (meaning here from the depths  
of despair, parallel: to save from an emergency) Šurpu IV (E. Reiner, A collection  
of Sumerian and Akkadian incantations, Osnabrück: Biblio-Verlag, 1958), 43,”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6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 of Chicago, 1958), 143 비교. 히브리어의 *špā  
ia-kādēy*의 *ḥ*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쓰이고 있다.

40) Wolfram von Soden, ed., *ekēmu(m)* “wegnehmen” hier “erretten,”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 194.

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 마르독이 그를 살게 했을 때, 시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을 체험한다.

- 2 [be-lí] ú-ša-bít-an-ni  
 3 [be-lí] ú-pat-t[in]-an-ni  
 4 [be-lí] ú-bal-liṭ-an-ni  
 5 [ina] ḫaš-ti e-kim-an-ni  
 9 [šá] im-ḫa-ša-an-ni  
 10 [<sup>d</sup>marduk] ú-šú-qi ri-ši  
 28 bīt qí-bi-ri-šu e-pu-šu ina qé-re-e-t[i] ...]  
 29 i-mu-ru-ma <mār> bābili<sup>ki</sup> ki-i ú-bal-la-ṭu [<sup>d</sup>marduk]  
 30 pa-a-tu kāl(dù)-ši-na ú-šá-pa-a nar-bé-e-[šú]  
 31 man-nu-um-ma iq-bi a-mar <sup>d</sup>šamši<sup>ši</sup>-šú  
 32 ina ḫb-bi man-ni ib-ba-ši e-te-eq sūqi(sila)-šú  
 33 šá la <sup>d</sup>marduk man-nu mi-tu-ta-šú ú-bal-liṭ  
 35 <sup>d</sup>marduk ina qab-ri bul-lu-ṭa i-li-'i (Tablet IV (?), Z. 2-35)

“주께서 나를 불드셨으니  
 나의 발을 세우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그가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으니,[……]  
 나를 내려치신 이, 마르독(Marduk), **그가 나의 머리를 드셨도다**(그  
 가 나를 회복시키셨도다).[……]

**내가 준비하였던 무덤이 잔칫집으로…**

바빌로니아가 마르독이 생명으로 회복시키심을 목도하였고,  
 모든 곳에서 그의 위대하심을 칭송 하도다.  
 ‘그가 그의 해를 보게 되리라’ 누가 생각하였을까?  
 ‘그가 그의 대로를 걷게 되리라’ 누가 상상하였을까?  
 마르독 외에 그 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

마르둑만이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sup>41)</sup>

시인은 여기에서 “마르둑이 자신을 고난당하게 하였고 또다시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ú-ša-qi ri-ši*, Tablet IV Z.10)”<sup>42)</sup>고 고백하고 있다. 고난 받는 자의 “머리를 들어 올리다.”<sup>43)</sup>라는 고대 근동의 표현은 구약 성경 읍기 본문 중에서도 그와 유사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읍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읍이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이 흥미로운 구절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읍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읍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의 얼굴을 들리니(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אֲנִי וְאַיִיב עַבְדִּי יִתְפַּלֵּל עֲלֵיכֶם כִּי אֶסְפְּנוּ אֹנִי)……”(읍 42:8).

『개역 개정』에서는 이 구절을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sup>44)</sup>라

41) 번역과 음성 표기는 람베르트를 참조하였다(한글 번역은 사역). W. G. Lambert,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58-59.

42) akk. *ša-qi-um* “높다, 높이 되다(hoch sein, werden)”; D-Stamm “높이다(erhöhen)”, “높이 들어 올리다(hochheben)” z. B. (Adler aus Grube) *uš-lul-taq-lta-qa-áš-šú* 38,46. *rēša-lī ša-qi-um*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은 “(나를) 구해내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Wolfram von Soden, ed.,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I, 1180-1181.

43) “마르둑, 그가 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르둑, 그가 나의 머리를 들어올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Vgl. Lul-lul IV, 10째줄; “나를 치셨던, 그분 마르둑이 나의 머리를 들어올렸도다 ‘[Derjenige, der] mich geschlagen hat (*ma-ḫā-šu(m)*), Marduk erhöhte (*ša-qi-um*) meinen Kopf (bzw. Haupt, *rēšu(m)*) (Z.9.10)”; *rēšu(m)* “머리, 정상; 시작, 꼭대기; 노예, Wolfram von Soden, ed., ‘Kopf, Haupt; Anfang, Spitze; Sklave,’”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 973.

44)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읍을 기쁘게 받으셨더라.”고 번역한다.

고 번역했으며 이는 NKJ의 “For I will accept him...”과 흡사하다. 참고로 가톨릭용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그의 기도를 듣고(8절)-야훼께서는 읍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셨다(9절)”라고 의역했는데 이는 NIV의 “I will accept his prayer.”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LXX에서는 이 부분을 “나의 종 읍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그의 얼굴(πρόσωπον αὐτου)을 받으리니(λήμψομαι λαμβάνω의 미래형 1인칭)”라고 번역했고 이는 히브리어 성경과 좀 더 가까운 번역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HS에서는 “내(여호와)가 그(읍)의 얼굴(פָּנָיו)을 들리라(שָׁמַע)”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셈족어 공통 어근 *nś*는 ‘높이 올리다, 들다, 취하다(hochheben, tragen, nehmen)’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손이나 팔(Hände, Arme)을 애원하듯, 기도하기 위해(bittend, zum Gebet) 들어 올리다(heben)”, “눈을 (위쪽을 향해) 올리다(Augen erheben)”라는 의미가 있다. “머리를 들다”라는 표현은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다”는 뜻으로 사용된다(*rēša(m) našû* “sich einer Sache od. jmd.s annehmen”)<sup>45</sup>. 확실히 8절과 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읍의 머리를 들다.”라는 부분은 기도와 연관된다. 여기서 기도하는 주체는 그냥 한 명의 인물인 읍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나의 종 읍”으로 불린다. 바로 이 “나의 종 읍”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겠다.”는 표현은 기도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읍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읍을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의미는 곧 기도자인 읍을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다. 즉, 기도의 응답은

45) Wolfram von Soden, ed,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 762-763; John A. B. rainkman, et al., eds., “to pay attention, to honor, to exalt,”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1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 of Chicago, 1980), 108f.

기도를 하는 주체인 기도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우선시되며,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기도자를 받아주실지 아닐지 결정하신다.

### 3. 나가는 말

집의 모티브는 욱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집은 고난의 장소이며 동시에 탄식이 극복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축제의 장소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욱기 에필로그(특히, 욱 42:11)에 나오는 욱의 집은 여호와께서 욱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드러내는 장소로 묘사된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집과 관련한 욱의 축복과 재앙이 묘사된 부분은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술되었다는 사실이다. 욱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나 개별적인 관심은 이미 서론에서 “나의 종 욱”(עַבְדֵי יְהוָה)<sup>46</sup>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표 1>.

하나님과 욱의 관계는 이미 처음부터 주종(Herr-Knecht) 관계로 나타난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역할 관계가 분명했고 정치,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수많은 고대 근동 종교 문서들에서 신을 섬기는 경건한 자로서 왕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신의 종’으로 표현하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욱은 고난당하는 첫 부분부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고 그의 탄식의 상황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주(Herr)이신 바로 그의 하나님께 옹드려 울부짖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욱의 탄식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욱기서 전체를 통하여 꾸준히 관찰할 수 있다. 에필로그에서 욱을 고난당하도록 하신 바로 그분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46) 하나님께 “나의 종 욱”이라고 프롤로그에서 두 번(1:8; 2:3), 에필로그에서 세 번(42:7에서 한 번, 8절에서 세 번), 총 5차례에 걸쳐 불린다.

사실을 잔칫집으로 변한 욥의 집에서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증거한다.

“무덤이었던 집, 곧 내가 친히 만들었던 그 장소가(*bū qí-bi-ri-šu e-pu-šu*)…잔칫집으로(*ina qé-re-e-t[i…]*)” (T. VI, Z. 10)<sup>47)</sup>

<표 1>

구절	내용	과정
1:4	아들이들 각각 자기의 집(ᵐᵇ)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ᵐᵇᵐᵇᵐᵇ ᵐᵇᵐᵇᵐᵇ)	축제의 장소
1:10	여호와께서 그와 그 집(ᵐᵇ)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 (사단의 참소-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여호와와의 보호
1:13.18 1:19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에서(ᵐᵇᵐᵇ)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자녀들이 모두 죽음	축제 가운데 재앙이 엄습
17:13, 14	스울이 내 집이 되어(ᵐᵇ ᵐᵇᵐᵇ)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진대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욥의 탄식 (스울이 된 집)
42:11	그 집에서(ᵐᵇᵐᵇ)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ᵐᵇᵐᵇ ᵐᵇᵐᵇᵐᵇ)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잔치와 위로의 장소

Ludlul에서 잔칫집으로 바뀐 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4 토판의 28-30절에 연속하여 나오는 구절들에 따르면, 절대 절망의 무덤에서 잔칫집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그 축제에서 온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마르둑 신의 위대하심을 칭송한다는 부분에 그

47) *bū(būu)*의 St. C), 전치사로서는 “어떤 장소(am Ort von)”, “어디[wo]”. (*būu(m)*, ass. *bētū(m)* “집(Haus)” 또는 특별히 건물] Wolfram von Soden, ed,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 132; *qabru(m)* (*qebēru*, *qubūru*로부터 파생됨) “무덤(Grab).” Wolfram von Soden, ed,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 888. *qerītu*, “잔치, 축제 (banquet, festival),”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3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 of Chicago, 1982), 240. 이 단어는 *qerī(m)*, ass. *qarā'u(m)* (sem. *qr'*)에서 파생되어 “부르다, 초대하다(rufen, einladen)”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Wolfram von Soden, ed,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 918.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마르둑 신의 행사를 목도한 전 바벨론이 와서 잔칫집으로 변한 그곳에서 그들의 입으로 마르둑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욥기에서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욥의 머리를 드신 후, 즉 욥을 받아들으신 하나님께서 욥의 운명을 돌이켜 회복시키시자, 욥의 집에 온 모든 형제, 자매와 전에 알던 자들이 다함께 와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으며 여호와와의 행사를 증거한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집은 인간이 처한 인간적인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하여 한 개인과 신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개가 되고 있다. 집은 인간 삶의 각 단계를 반영하는 장소이며 욥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관련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종 욥의 운명이 축복에서 환란으로, 또다시 환란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공간이며 동시에 그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잔치를 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이야기하는 장소로,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하여 그 독특한 의미와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욥의 집이 고난에서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호와와 욥의 관계, 더 나아가 운명 변화의 주체로 여호와의 확고한 위치가 **여호와께서 욥(고난 받는 자)의 “머리를 들어 올리다”**는 표현(욥 42장 8-9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고대 근동의 Ludlul IV 9-10째 줄에 나오는 “나를 치셨던 그분, 마르둑이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셨도다”(Z.9.10)는 고대 근동의 표현 양식과 비교하여 문자적, 문학 전통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주요어>

욥의 집, 바빌로니아 욥, 마르둑, 사회 단일체, 회복

### <Key Words>

The house of Job, Babylonian Hiob(ludlul bēl nēmeqi), Marduk, Gesellschaftseinheit, Wiederherstellung

### 참고문헌

- Abraham Even-Shoshan, ed., *A New Concordance, Treasaurus of the Language of the Bible Hebrew and Aramaic Roots, Words, Proper Names Phrases and Synonyms*, Jerusalem: Kiryat Sepher, 1997.
- Bammel, F., *Das heilige Mahl im Glauben und Völker: Eine religionsphänomenologische Untersuchung*, Gütersloh: Bertelsmann, 1950.
- Chiera, E., *Selected Temple Accounts from Telloh, Yokha and Drebe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21, 29.
- Clines, D. J. A.,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Dallas: Word, 1989.
- Dahood, Mitchell J., "Northwest Semitic Philology and Job," John. L. McKenzie. Saint Mary's Theology Studies 1, ed., *The Bible in Current Catholic Thought*, New York: Herder & Herder, 1962, 55-74.
- Driver, S.R. and Gray, G.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Together with a New Translation*, 2,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14, Edinburgh: t. & t. Clark, 1921.
- Elberfelder, *Die Bibel, Elberfelder Übersetzung*, 5th ed., Darmstadt: R. Brockhaus Verlag Wuppertal, 2002.
- Fohrer, Georg, *Das Buch Hiob*,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16, Gütersloh: Guetersloher Verlagshaus G. Mohn, 1963.
- Gray, J., "The Book of Job in the Context of Near Eastern Literature," *ZAW* 82 (1970), 251-269.
- Held, Moshe, "Pits and Pitfalls in Akkadian and Biblical Hebrew," *JANES* 5 (1973), 175, no. 18, *šūḥā*. "(Fall-)Grube."
- Hoheisel, K., "Art, Haus II. Religionswissenschaftlich," *RGG* <sup>4</sup> 3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2000), 1477 ff.
- Hübner, U., "Art. Haus, (I. Archaeologisch)," *RGG* <sup>4</sup> 3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2000), 1495 ff.
- Keel, O., *The symbolism of the biblical world, Ancient Near Eastern Iconography and the Book of Psalms*, Timothy J. Hallett, trans., Winona Lake: Indiana

- Eisenbrauns, 1997.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eds.,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 Kramer, S. N., “*ein Mann und sein Gott*,” *Supplementsto VT* 3 (1960), 170-182.
- Kuhl, C., “*Neuere Literarkritik des Buches Hiob*,” *TbR N. F.* 21 (1953); R. Bultmann und E. Dinkler, Hg., *HEOLOGISCHE Rundschau Neue Folge*,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54, 257-317.
- Lambert, W. G.,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Oxford: Clarendon, 1960.
- Mathewson, D., *Death and Survival in the Book of Job, Desymbolization and Traumatic Experience*, New York London: T&T Clark, 2006.
- Mayer, G., “*ירד jārād*,” *ThWAT* 3, Stuttgart; Berlin; Köln: Verlag W. Kohlhammer, 1982, 898.
- Mayer, W., *Untersuchung zur Formsprache der babylonischen Gebetsbeschwörungen* (UFBG), *Studia Pohl (StP)*, Series Maior 5,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6.
- Meyer, *Hebräische Grammatik II*<sup>3</sup> § 40,7,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2.
- Morrow, 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5 (1986), 217.
- Müller, H.-P., “*Die Hiobrahmenerzählung und ihre altorientalischen Parallelen als Paradigmen einer weisheitlichen Wirklichkeitswahrnehmung*,” H.-P. Müller, M. Welker, and E. Zenger, [Hg.], *Alttestamentliche Botschaften in den Auseinandersetzungen unserer Zeit, Altes Testament und Moderne* 1 (1998), 103-121; org. ed., W. A. M. Beuken, Hg., *The Book of Job*, *BETHL* 11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21-39.
- Müller, H.-P., *Hiobproblem, Seine Stellung und Etnstehung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sup>3</sup>; org. ed. 1978.
- Nötscher, F., *Sakrale Mahlzeiten*, In: *Festschrift, Jünker*, unpublished.

- Pope, M.H., *Job*, Anchor Bible 15, 3rd ed., Garden City, N.Y.: Doubleday, 1973.
- Roth, Martha T., ed.,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 of Chicago, 1965.
- Schellenberg, A., *Hiob und Ipuwer, Zum Vergleich des alttestamentlichen Hiobbuchs mit ägyptischen Texten im Allgemeinen und den Admonitions im Besonderen*,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ed., Zurich: Theologischer Verlag Zurich, 2007;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nte Verità vom 14-19* (2005 August), Th. Krüger and M. Oeming, et al., Hrsg., *TVZ Theologischer Zürich*, Zürich: Verlag, 2007; *Abhandlungen zur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E. Blum, et al., Hrgs., 88, Zürich: Zwingli, 2003.
- Vall, G. R., "From Womb to Tomb: Poetic Imagery and the Book of Job," Ph. 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93.
- van Dijk, J. J. A., *La Sagesse Suméro-Accadienne*, Leiden: Brill, 1953, 120-121.
- von Soden, W., *Akkadisches Handwörterbuch I-I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1981.
- Wächter, L., "Art. lwaov. šē'ôl," Heinz-Josef Fabry and Helmer Ringgren, Hg., *ThWAT 7*, Stuttgart; Berlin; Köln: Verlag W. Kohlhammer, 1993, 901-910.
- Wächter, L., "Art. txv šalūt...," Heinz-Josef Fabry and Helmer Ringgren, Hg., *ThWAT 7*, Stuttgart; Berlin; Köln: Verlag W. Kohlhammer, 1993, 1245-1248.
- Wächter, L., "Unterweltsvorstellungen und Unterweltsnamen in Babylonien, Israel und Ugarit," *Mitteilungen des Institute für Orientforschung* 15 (1969), 327-336.
- Waschke, E.-J., Art. תִּקְוָה *tiqwāb*, *ThWAT 8*, Stuttgart; Berlin; Köln: Verlag W. Kohlhammer, 1995.
- Zimmerli, W., *Der Mensch und seine Hoffnung im Alten Testame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초록>

## 욥의 집

-성서의 욥기와 바빌로니아 욥(Ludlul bēl nēmeqi, “내가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에 나타난 고난과 축복의 장소로서의 집에  
대한 비교 연구-

정영아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박사, 구약학)

욥기 에필로그에서 “욥의 집”은 한 때 완전히 망했던 장소에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진 장소로 등장한다. 하나님과 욥 사이 대화가 결정적인  
변화 요인으로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욥의 얼굴을 드신다.’ 그러자 그  
의 전 생애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의  
집은 그가 받은 고난과 축복의 구체적인 장소가 된다. 이곳에서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소적  
배경이 된다. 그의 집에서 탄식이 극복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사가  
모두에게 드러났고 그가 아는 모든 이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다.

수메르어 ‘에’(É)와 같이 아카드어 ‘비투’[bītu(m)]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 거하는 곳, 처소, 부동산, 무덤, 지역, 가족, 가계 등”.  
히브리어에서 집(בַּיִת)은 고대 근동의 그것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당시 사람들은 사람과  
그의 집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신의 심판이 그의 모든 집에 임하였다. 욥은 그의 탄식  
가운데 자신의 집이 무덤(מִצְבָּה)과 같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다(욥  
17:13-14).

메소포타미아 우르 제3 왕조 이래 문학작품에서는 ‘고난 받는 의인’  
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 사람과 그의 신”이란 소위 ‘수메르

읍”이라 일컫는 작품과 “바빌로니안 읍”이라 불리우는 “루들룰 벨 네메끼”(ludlul bēl nēmeqi, 내가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에서 우리는 읍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을 얻는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를 고난당하게 하신다. 자신의 탄식의 절정에서 읍은 “그의 손이 내 신음 위에 무겁도다(על־אנחותי יָדַי כְּבִדָּה)”(읍 23:2b)라고 말한다. 바빌로니안 읍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손이 내 위에 무거우니, 내가 견딜 수 없도다”(kab-ta-at qāt-su ul a-li-‘-I na-šá-šá, in ludlul bēl nēmeqi Tablet III Zeile 1).

읍기 전체에서 언급되는 ‘읍의 집’ 연구로 더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작품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읍기 내에서 한 사람의 집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재발견하게 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큰 변화의 장소인 읍의 집, 전에 무덤과 같던 읍의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리는 축제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

<Abstract>

## The House of Job as a Place of Suffering and Blessing: A Text-Critical Analysis in Comparison with “Ludlul bēl nēmeqi”

Dr. Young-A Jung  
(Heidelberg University)

In the epilogue of the Book Job, the “House of Job” which was once completely desolated place appears as a restored place. The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Job is the decisive factor in the whole story. God “raised Job’s face” and changed his whole life. Along the whole book of Job, the House of Job reflects the concrete shape of blessing and suffering of Job.

In this place, Job experienced a tremendous touch of God, and His restoration and blessing as well. There, Job overcomes his lamentation; in there, God's doing is revealed and a public consolation from all his acquaintances took place.

Like the sumerian É, the akkadian bītu(m) has variolous meanings: "house, dwelling place, shelter, estate, tomb, place, area, region, household, family etc." The hebrew word for 'house (בית)' has the same etymology. In ancient Mesopotamia and especially in the Old Testament, they believed that there's a solidarity between a person and his house: If a man commits a sin, there must be a divine punishment upon his whole house. In his lamentation, Job described his house as a tomb(שחת)(Job 17:14). Even though Job constantly claimed his innocence, he knew God allowed him such sufferings. Since the Ur III dynasty in mesopotamia, in literature they raised questions about the problem of the "righteous sufferer." So-called "Sumerian Job" which is entitled "a man and his god" and "Babylonian Theodicy" or "Babylonian Job"(it's original title is "ludlul bēl nēmeqi") offer some important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book of Job. Nobody but God Himself lets him suffer. In the climax of the lamentation, Job said that "His hand is heavy upon my groaning, יָדֵי כְבֹדָה עַל־אֲנַחְחִי"(Job 23:2b) and we found same attitude in Babylonian Job when we read the verse, "His hand was heavy upon me, I could not bear it, *ka-b-ta-at qāt-su ul a-li-'I na-šá-šá'*(*ludlul bēl nēmeqi* Tablet III Zeile 1).

When God "lifted Job's head up"(Job 42:8-9), there was a dramatic transformation. From "death" to "life," God changed Job's lot and Job's house represents a dramatic transformation of this process through the whole book of Job.